구어(口語)로 허물어진 오늘날의 언어
‘받침을 없애는 노력’의 이야기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안 수 길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만사에 정통성을 존중해 왔고 따라서 언어(한국어)에 관해서도 그 정확성을 지극히 중요시하였다. 글을 씀에 있어서도 한 획, 한 점의 정확성에 더해서, 필순까지도 문제가 되곤 하였다.

세종대왕은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 조신들의 ‘말’의 음운(音韻)을 까다롭게 밝혀 언어를 가다듬게 하시었고, 이로 해서 나아가서는 만백성들도 정확한 언어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말’을 존중해서 “나라말씀”이었고, 지금 일반민들의 대화에서도 말이란 상대편에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이지만 “저의 말씀은…”이 되는 것이다.

세종대왕께서 申叔舟, 崔恒 등 집현전 학사들로 하여 우리말의 음운(音韻)을 총망라케 하시어 그 가지 數가 91개임을 밝히게 하셨으니(‘東國正韻’) 이는 우리의 音韻 구별 능력을 인간에게,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를 通해 분간이 가능한 최고 한계를 겨누게 했었던 것이다. 〈언어학계에서는 ‘!Xóõ’라는 언어의 音韻의 가지 數가 112개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지금 서양사회에서 실질적인 音韻의 가지 數는 50~60가지에 불과하다. 91韻은 출중한 세종대왕의 음운식별력, 그리고 예민한 한국 사람들 감각이 아니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정밀도인 것이다.〉

大王의 커다란 관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음운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신들과 양반 집안에서까지 한국어(특히 漢字)를 정확하게 활용하지를 못해서 세종대왕께서 한탄(恨歎)을 하시어 훈민정음을 만드신 것이었다. 후일에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正祖) 등도 나라에서 만든 것이지만 상기 ‘동국정운’이나 ‘훈민정음’ 양쪽 다 언중(言衆)들을 정확한 발음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어느 정부도 이처럼 백성들 ‘소리 정음’ 노력을 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이 글 모두(冒頭)에 “만사에 정통성을 존중했다”고 했던 것이다. 〈훈민정음의 “어음(sound)이 중국과 다르다”라는 구절의 해석을 그 이상으로 확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 語音은 ‘華音’인 반면 우리 語音은 ‘東音’이고 이 두 가지가 다 集賢殿에서 살핀 漢字圈의 언음(諺音)인 것이다.〉〈東國正韻에도 “御製訓民正音 定 其音…”으로 즉 “소리를 정했다”고 해서 訓民正音 제정의 목적이 ‘書’ 아닌 ‘音’, 즉 ‘소리’임을 시사하고 있다.〉

원래가 하늘을 내세우는〈天孫族〉 제왕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란 하늘을 받들어 도량형과 曆書를 발행하여 혼란 없는 표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나라말씀

(한문+언문) 정리가 그와 같이 중요했던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중국어와 漢文을 동일시하기가 쉬운데 白話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바 '중국語'는 行政 위주인 '漢文'과는 다르다. 이 사정은 인도에서 힌두- 등 '민중語'에 대한 'Sanskrit'라는 行政爲主 언어의 입장과 유사했다. 한국과 중국 행정은 한자/한문을 근자에 까지 정확하게 썼지만 중국의 민간 들은 그렇지가 못했다. 따라서 가장 오묘한 이론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중국口語인 白話로 할 수밖에 없어서 性理學의 近思錄에도 백화문 표기가 제법 있었다〈成元慶 明文堂, p. 35〉. 우리의 한자/한문은 明나라가 亡한 다음에 우리가 주종이 되었기에 '漢文은 중국이 主宗'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발음 등도 우리가 더 정통의 것을 유지해왔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근자에 와서 한문은 자기네들 것이 아니라고 白話로 소설쓰기 등이 유행한 시기까지 있다〈예, 로신(魯迅)의 阿Q正傳〉.

나라님이 공부 끝에 판정해서 내리신[신단(宸斷)하신] 역서(曆書)나 도량형(度量衡) 등 '하늘의 질서'를 부정한다는 것은 천하경륜(天下經綸)의 근본을 없이 여기거나 부인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당해왕조(當該王朝)에 대한 도전(挑戰)으로 생각되어서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語文생활은 생각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正音/正韻에 대한 나랏님의 관심은 朝廷 內에서까지 〈迎合노력은 있었으나〉 완벽하게 따르지를 못했고, 그래서 국어(한문+언문)의 평균적인 發音은 번번히 基準을 못 따르고 허물어지곤 했다.

1. 인류(人類) 언어의 퇴화(退化)

그와 같이 계속 허물어져 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어(韓國語)로서 요사이 사람들이 흔히들 갖고 있는 맹신(盲信)과 같이 "옛사람들은 아둔하고, 우리는 '현대'니까 계속해서 더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류의 言語는 退化를 하는 일면이 있어왔다. 〈卽 한 동안 正確하게 다뤄졌든 字義들 역시 후일(後日)에는 모호하게 分解能이 後退해서 뜻이 混同되기 시작했다.〉 〈例를 들어 지난 10년 사이 '꼭(必)'과 '꼬~옥'을 혼동하고, '광주'와 '과앙주(廣州)'를 동일하게 발음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현대에 들어서서 주로 TV 등이 시청각(視聽覺)을 모두 동원하기 때문에 순수한 언어에 대한 의존도(依存度)가 덜한 의사소통 방법이 일상생활에서 통용(通用)되기 시작했고, 論理的이고 嚴密한 언어, 卽 옛 대로의 협의(狹義)의 언어의 役割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TV 等 視覺 情報가 다를 때에는 말을 안 하고 wink로 대신할 수도 있다.〉

즉 TV 등 더 쉬운 意思疏通 방법이 생기면 '純粹한 언어에 依한' 의사소통 방법의 重要性이 줄어들고 나아가서 畵像 등을 떠나 言語만 분리해서 보았을 때에도 그 正確性은 後退하고 있는 것이다. 時代의 다양성과 더 많은 情報 등으로 해서 말이 더 正確하게 되는 것이 아

니고, 오히려 表情이나 제스쳐-에 더 의존하게 되었고, 내용의 分解能이 줄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넘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말이란 '아'가 다르고 '야'가 다르다는데, 이제는 그 다르다는 것을 區別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新學問을 배웠다고 젊은이들이 자만에 빠지고 解弛하기 시작한 한 편으로 打字의 誤謬를 잡아주는 워-드:프로셋서- 의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 失手를 補完해 주는 써-비스技法이 발달해 오히려 인류의 머리와 특히 몸 쓰는 技能은 더 떨어지고 있는 樣相이다.

2. 가르쳐도 維持가 안 되는 것

例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義務敎育인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2~3%의 문맹률(文盲率)을 가지고 떠나는데, 일부 사람들은 TV 및 自販機와 사방에 깔려 있는 '아이콘'에만 매달려 살다가 보면 점점 글을 잊어 버리게 되어 후일에 가서 10여 %의 문맹(文盲)이 오히려 생긴다는 것이다.

반대로 지난 時代와 같이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TV가 아니고 新聞 등 印刷物에서만 정보를 얻는 경우라면 사람들의 조리에 맞는 思惟 습관과, 論理的인 언어 구사 능력은 强하게 유지된다. 〈TV시청자보다는 라디오 愛用者가 좀 더 論理的이지만 TV 등 多元의사소통方式에 익숙해서 요사이 그들마저도 옛날과 같이 論理言語에 密着하는 努力이 덜하게 되었다.〉

時代는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觀念的이어서 이 "발달하고 있다"와 "漢字는 남의 것이다"라는 盲信이 눈을 가려 오늘날 '言語의 退化'에 관한 인식 부족에는 놀라운 것이 있다. 매스컴에서도 全國民 영어 沒入 환경을 만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全體 국민의 英語 實力이 뚜렷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엣지(edge)' 있는 英單語 몇 個가 各自의 언어의 論理力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自國語에서 基礎가 안 되어 있는 言語力이 영어를 썼을 때 그들의 언어가 '유권해석(有權解釋)'에 유리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3. 大跳躍을 위해서 本格的으로 준비했어야 할 때에…

日帝時代란 우리에게는〈개화(開化)를 준비했던 바〉 現代文化에의 入門時期였고 광복 후 60년이 지난 오늘 時點까지는, 우리 예로부터의 탄탄한 言語秩序 繼承, 그리고 合理的인 現代語彙 擴張 등을 꾀했어야 하는 時期였는데 先代가 지켜온 在來式 언어의 전수(傳授)라는 큰 일에 新世代를 순치(馴致)(leading to) 못해서 커가는 젊은이들과 學術人 및 專門職에게 全

幅的으로 中堅語-學術語-稀貴語를 알려 줄 기회를 갖지 못했고, 學校와 社會의 분위기로 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歐美 학술, 그리고 IT를 향한 信奉과 제 땅의 지난 날 文明에 대한 輕視만을 갖게 되었다.

심지어는 작금에 와서 TV라는 〈de facto〉 大衆敎育方法을 활용해서 오히려 감히 全幅的인 언어의 加工, 또는 全國民의 언어改造를 試圖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지난 20년간은 보일락말락하게 우리말에서 '받침'을 消滅시키는 경향이 觀察되고 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案內방송에서는 꿈꾸는 듯 優雅한 목소리를 내는 아가씨가 'ㄹ'자 받침을 强하게 내기를 싫어해서 B1층을 계속 "지하 '이흐층'입니다"라고 발음하고 있다.〉 KBS에서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멘트錄音者'는 '흐름化'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智慧를 찾았다", "있는 것 같다", "있는 것이다"라는 멘트를 "智慧를 차자따", "인능 거 가따", "인능거시다"라고 발음하고 있다. 결국 중국 등의 '글자에서 멀었던' 백성들이 〈세월 지나감에 따라〉 이룩하게 된 白話와 같이 'ㄴ', 'ㅇ'만 남기고 'ㅈ', 'ㅆ', 'ㅅ', 'ㅌ' 등 받침을 기피한 것이다.

그러나 一國의 언어를 그와 같이 쉽게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한 행동은 言衆에 남겨진 거대한 言語遺産의 총량과 그들이 갖는 커다란 慣性(momentum)의 全幅을 가늠하지 못한 〈所謂 '現代敎育'만 받았을 경우 自然히 歸結되는〉 輕薄계층의 착각으로, 우리 言語의 진정한 무게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체 백성들에 스며 있으면서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우리 成文文化 等 在來 文化의 底邊 作用力〈조선조 말까지도 많은 집안이 한 쪽 구석에는 祖上님들이 써 놓은 글들을 갖고 있었다〉을 잘못 가늠하고, 評價를 제대로 못 하면서, 지난날의 文明을 쉽게 보고 이를 버리려 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날의 것을 否定시키려는 '理念'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4. 言語의 도도(滔滔)한 계승을 한 두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중의 평균치를 움직이는 바 全體 국민 特性의 意圖的인 加工이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外觀上 아무리 '엣지' 등 流行語가 판을 치는 듯해도 民族의 言語란 그리 쉽게 搖動치는 것은 아니어서 言語習慣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다. 例를 들어 佛國 上院이 있는 빠리의 '뤽생부-ㄹ' 庭園은 메디치(Medici) 王家가 이름을 고치게 했으나, 4명의 王을 배출한 Cathrine의 권세 속에서도 살아 남아 200년 후에는 손대지 않아도 다시 'Luxembourg'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理念主導 言語加工문제로 돌아와서 加工者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믿고 '氷山의 露出部'를 흔들어보지만 水面 아래 보이지 않는 部分은 극히 惰性이 크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

을 것이다.〉〈또한 '流行語'는 一時的이어서 결국은 負擔이 안 되고 끝나는 境遇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壓迫感을 주면서 하는 理念性 '新造語'의 普及 試圖는 언중을 위해서는 스트레스인 것이다.〉 이런 事例로 봐서도 한 번 定着된 單語는 그리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갈증(渴症)이나 있는 영장(靈長)들의 知的 舞臺에 한 번 도입된 語彙는 文化活動의 증가 추세로 해서도 쉽게 忘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人類가 방대한 語彙를 획득하게 된 背景인 것이다. 〈豊富한 表現과 많은 單語에서 골라 쓰겠다는 選擇欲求에는 限界가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글 쓸 때 크게 도움을 주는 thesaurus(類義語辭典: 意義分類 類似語辭典)가 여태껏 없다가 이제 겨우 하나 발간된 것 같다.〉

5. 지금 한국어圈에는 변변한 Thesaurus 하나 없다(2010년 말 하나 간행됐음)

그러나 그 옛날 英國에서 원시생활 段階를 벗어난 貴族들이 文化된 일로 생각해서 자녀를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言語를 잡아주는 'Grammar school'이고, 러시아의 初等學校에서 그들의 알파벳(Cyrillic)의 音韻을 완전히 귀와 입에 익히는 데 1~2년 이상 투입하는 '언어學習 철저'의 慣習을 감안하고, 반대로 우리의 초등학교에서는 작금에 와서 도리어 韓國語의 문법도 안 가르친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경우 '語文敎育'이라는 큰일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不足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初等學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心身이 長成함에 따라 천천히 一生을 배우게 되는 '言語'의 전체 言衆레벨의 慣性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현대 韓國人들은 제대로 가늠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言語敎育이란 언어의 '論理性'을 살려, 〈'신음'이나 '咆哮' 등 動物的 感性 單語 및 거의 타고난 本能語彙들의 音感으로 해서 얻어진 原始 語彙에 滿足하지 않고〉 동물과의 差別化를 하기 위한 노력이고, '文語体' 등 고도의 言語의 發達만이 인간 思考力을 계속 知性으로 자리묶음해 주면서 人間만이 가질 수 있는 특이한 知的 次元으로의 跳躍을 허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날 全世界的으로 사람들은 言語교육에 그처럼 力點을 들였던 것이다.

6. 知性 懶怠로 몰아가는 매스컴(政治 및 상업 예속)의 洗腦 상황

우리 世紀에 들어서서 사람들은 萬事가 쉬워졌다고 해서 ① 言語 퇴화를 방치하고, TV 등 눈앞에 자극물이 많다고 해서 ② 생각을 게을리 하면서, 知性 懶怠에 빠지기도 했다. 思惟기능은 줄이고 感覺은 키운 것이다. 생각은 접고 感覺을 키워 만들어낸 흐름 중의 하나가 '우아

한 감각'을 위해서 上述 받침을 흐려서 발음하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말은 받침들 때문에 말 흐름이 막힌다"고 '우아함'을 위해서 終聲을 약하게 발음하거나, 아예 뒤로 移行을 시키는 궁리를 하는 경향을 말한다.

근자에 와서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事例를 들자면 피규어 스케이트 선수 '연아'를 'Yu-Na'로 하면서 〈아래에서 說明〉 받침을 없애는 등 發音破壞를 하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當局者를 종용해 '맞춤법'을 改定해서 받침을 뒤로 돌리고 있다. 言語 實力 바탕이 없는 매스컴 一部 사람들이 슬쩍슬쩍 시도하는 그러한 '우아함' 추구 등 言語加工을 허용하는 줏대 없는 흔들거림은 국민 전체의 언어 驅使 실력의 低下를 초래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低次元의 우아'에 安住하게 만들 것이다.

7. 느낌의 時代가 가져온 '物神과 量'

高度의 언어와 이에 따른 사고력(思索力)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衣食住 등 인간의 基本이 解決되면 그 다음부터는 物神과 量에 이끌려 〈투표권이 생기고, 쓸 돈이 좀 있으면〉 政治口號와 商品宣傳에나 휘둘리는 바 그 自體 消耗品的 大衆으로의 전락을 뜻한다. 〈대부분 國民과 거개의 消費者들는 이미 조작의 '對象'에 불과하다.〉 한편 人文에서 크게 이룩해놓은 '文化'는 "語文"이 그 가장 큰 기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의 全幅 享有는 우리가 작금 대중매체에서 흔히 보는 바, '춤추고', '노래하고', '웰빙' 食生活이나 가늠하는 한정어휘(限定語彙) 言語를 갖고는 안 되고, 言語에의 최소한의 소양은 있어야 한다. 하물며 發音上 '흐름 좋음'을 좇아, 또는 어떠한 先入觀을 갖고 하게 되는 單語낯가림(例, 아나운서- 들이 "感謝"라는 말을 극력 피하는 等 漢字系 單語 忌避)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상들의 智慧로 긴 歲月을 두고 이룩해 낸 제 나라의 言語에 함부로 손을 댈 것이 아닌데, 우리의 경우 그 國語를 함부로 했고, 조상들이 썼던 한자/한문이라는 '큰 그릇' 言語를 너무나도 쉽게 斷罪했다. 〈이러한 語文에 關한 國家準位(level)에서의 判斷이란 關心 갖고 30~50년을 지난 다음에 내렸어야 할 重大事인데 北韓에서나 南韓에서나 政治勢力들은 우선 당장이 急했던 것이다.〉 〈그러나 歲月은 흘러 이제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나 있는데도 되풀이되는 '맞춤법 改定'으로 해서 말에 대한 解釋이 年齡層과 理念에 따라 서로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眞實은 차치(次置)하고 말을 해도 서로 理解를 拒否할 정도로 생각에 差異가 나게 된 것이다.〉 〈말의 一樣性이 허물어지면 相對便 이야기를 듣고 서로 自己에게 便利하게만 理解하게 된다.〉

8. 처음부터 東洋과 西洋의 學問은 서로 補完했어야…

이로 해서 지난날 新학문 時代의 到來를 輕率한 일부 계층 사람들이 惡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우리 民族이 東西의 學問을 어울러 진정한 人類 규모의 學問으로 大成시키기 위해서 所謂 ① '舊 학문'이란 基盤을 오히려 더 强化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② 동서양 學問을 융합해서 文化의 武器로 삼아 眞正한 理性과 洞察이 융합된 新學問으로 이끌어 탄탄하게 完成하는 大文明 시대를 이룩하는 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 〈歐美 文明에 限界가 보이는〉 오늘날 차차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例를 들어, 偏見에서 벗어나 더 넓은 視野에서 우리의 堅實하고도 건강한 飮食문화, 그리고 家族-친척-마을의 社會保障 風習 등 傳統文化를 제대로 評價할 줄 안다면 이 '그린'時代, 그리고 에너-지 節約시대에 그 어디에 最少 浪費의 슬기로운 우리 옛 制度라는 遺産과, 人類의 앞날을 감안한 예로부터의 知的 資産의 단 한 토막이나마 버릴 것이 있겠는가?〉 〈言語의 效率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智慧 있는" 나라에서 한 民族의 言語란 긴 歲月을 두고 버릴 것은 自然히 다 버려졌을 것이기 때문에 後孫들은 이를 尊重하고, 함부로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다.〉

아래에 우리의 종합적인 智慧를 담아야 했을 '國語'를 오히려 毁損한 事例를 들자면 아마 "우리는 韓國語에서 '長音'을 완전히 없애고 30년을 지났다"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9. 長音 포기에 소통 저해(沮害) 책임의 일단이…

우리는 눈을 가리고 認定 안 하려 하지만 결국은 "글자에 나타나지 않은 長音을 〈敎科書 敎育밖에 못 받은〉 後孫들이 알아서 제대로 發音할 理는 없는 것"이고 長音 表記 방법이 없음으로 해서 일어난 全般的인 弊端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識者들까지도 그 全幅的인 認識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沒認識의 당연한 귀결로 상기 弊端을 시정할 政府단위 대책도 본격적으로 세워지고 있지 않다. 〈長音表記를 爲해서 hyphen(-) 追加 등 國家的 對策을 確立/公示하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정부 諸 部處들이 종종 하고 있는 '新用語' 제정에도 國語院이 참여, 또는 裁定하고 있지 않고, 함부로 된 누릿꾼의 막된 新造語들은 '국어원'이 2권의 辭典까지 만들어 주면서도 어른들, 그리고 全體 國民에게 필요한 上述 thesaurus에는 關心이 없어 보인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몇 개의 예를 더 들자면 '국산 ⇒ 국내산', '도살처분 ⇒ 살처분', 償還制등록금 방식 ⇒ 등록금상환 방식 〈前者는 종류가 제한되지만 後者는 '빌린'이란 말을 先行하지 않으면 全體的으로 학교가 登錄金을 상환하는 것이 된다〉 등이다.

10. 歐美에서는 近世 들어 語彙의 大型化를 이룩하였다

Chaucer(영국, 15세기), Shakespeare(영국, 15세기), Rabelais~Balzac(佛, 16~19세기), Schiller~Goethe(독일, 18~19세기), Strindberg(Sweden, 19세기), Souseki Natsume(日, 20세기) 以來로 상게(上揭) 여러 나라 語彙의 급격한 大型化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우리나라 名文堂의 字典에 나와 있는 漢字의 수가 漢字 50,000字이며, 民衆書館에서 나온 字典의 〈韓國語〉숙어 및 참고숙어의 수가 10만 개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최근에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에서 나온 '漢韓大辭典'은 55,300여 자, 45만 단어를 모아서 世界 最多라고 하니, 이와 같이 누적된 大語彙를 감안해서 인류의 精密 표현 욕심에는 한계가 없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한 번 도입된 單語들을 言衆들은 그리 쉽게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한 사실들로 보았을 때 우리가 지난 20년을 해온 바 言語退化, 또는 言語破壞는 人間 本性에의 逆行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11. '말'과 '이름'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무엇이…

그리고 문명에 따라서는 '이름'과 '言語'를 極端으로 重要視했다는 事實을 제대로 認識해야 한다. '이름'에 사람을 自肅케(노블레스 오블리-즈) 하는 무엇이 있고, 많은 경우 가성(家姓)에 '처신'이 있는 것이다. 訓民正音 諺解부분 등에서 보면 人名과 지명을 한글로 옮기지 않고 漢字표기 그대로 남겼다. '추신수', '치도곤', '임신중' 등 이름은 '소리'보다 '한자라는 기호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게 있는 '뜻' 앞에 발음이 중요하지 않았을 정도였던 것이다. '言語' 역시 發言되지 않기에 더 强烈할 수가 있으며, 發言이 돼서 오히려 뒷탈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사람들 思惟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이기에 인간들은 '이름'(Sumer語를 포함해 아시아言語에서는 사람 이름을 한자 등 기호로 주었다)과 '言語'를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말을 하는 데 더 愼重했고, 言語는 더 完璧함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언어의 論理性도 오늘날보다는 더 크게 강조되어 왔는데, 옛 사람들의 언어습관을 尊重하고 따르는 나라들은 비교적 完璧한 '國語의 格'이 그 言衆들에 定着되고 있다. 다시 말해 先代가 확립한 언어秩序가 있기에 後代가 큰 노력을 아니 해도 格이 높은 言行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것이야 말로 '文化遺産'인 것이다. 〈Haiti大地震에서 interview한 現地人이 佛語 動詞의 直說法 單純過去나 接續法 半過去 등 고급문법을 쓰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 그 個人의 文法 知識이

한자소실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휘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인가!

完璧했다기보다 無意識 中에 따라 하고 있는 바, 지난날의 '듣던 風月', 다시 말해 植民시대의 遺産일 것이다.〉

12. 言語 혼란 적은 것은 한 社會의 底力

그러한 文化圈 국가들의 문화는 훨씬 혼란이 적다. 한 社會의 언어遺産이 출발점에서 '正確한 言語'였기 때문에 두고두고 '正確한 언어' 습관이 전체 民族 level(準位)에 남아 있게 되는 것으로, 그러한 秩序를 교란하기 시작하면 후일에 그 混亂은 再整理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게 된다. 〈KBS가 지난날 放映한 '시어머니 뺨을 치는 며느리'씬(情景)의 뒷탈도 오래 끌게 될 것, 아니면 시어머니 격하 풍조로 영영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光復 직후의 小兒病的 '漢字혐오감' 조성〈北韓도 光復 後 얼마 안 가서 統治技法上의 必要性으로 해서 新聞 等에서 漢字감추기를 시작〉 따위 人爲的인 언어 加工의 책임은 甚大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佛語를 包含해 지금 아름다운 것으로 評價되고 있는 言語들은 '지난날의 識者階層의 語彙는 쓰지 말자' 또는 "文語體는 없애자"는 등 무리한 加工은 하고 있지 않고, 原形을 최대한으로 維持하면서 '잘된 것'을 累積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와 같이 한 두 世代의 '理念' 등을 위해 언어를 加工하거나, 또는 무리한 根據로, 漢字系 高級단어를 '작살'내는 事例는 없다.〉

13. 單語들은 老兵과 같이 "죽지 않는다. 천천히 사라질 따름이다"

一般的으로 人類는 꾸준히 語彙를 키우고 그 擴張量에 비례하는 人智 발달을 보아 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形成된 語彙는 "歷戰의 老兵은 죽지 않는다. 다만 서서히 사라질 따름이다"라는 속담과 같이 言衆단위로 보았을 때 그 壽命이 무척 길다. 지난 30년의 무리한 言語攪亂의 비틀림을 되잡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손쓰지 않으면〈21人의 熟年의 前職 國務總理들이 漢字를 초등학교에서 다시 가르쳐야 한다고 連名으로 歎願〉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가 잃게 될 어휘(주로 漢字系)의 총량은 아마도 지난 200년간 영어권에서 일궈낸 新生 語彙의 10배는 넘을 것으로 보인다. (上記 民衆書館 字典에 대부분 死藏된 語彙의 크기를 보라.) 우리는 몰라서 論理言語를 잃어가면서, 上述 동물과 공통의 感性단어, 本能語彙 等 音感 위주 原始語彙의 홍수 속에서 소위 '웰빙 생활의 頂上文化'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三一獨立宣言文의 雄大함과 崔南善의 纖細한 單語배분을 全幅的으로 평가하는 能力마저 잃어가고 있다.〉

14. 集賢殿시대 기준으로 國語는 더 완벽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

일본(日本) 가수들이 가요를 부르는 것을 보면 그들이 종종 'ㄴ' 받침을 'ㅁ' 받침으로 발음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다. 例를 들어 로마表記法으로 'sinnde(死んで)'를 'simmde'로 발음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는 뜻이다. 우리 한국어의 경우는 받침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例: '간사'와 '감사'는 다르다.〉 그들에게는 '니은: ㄴ'과 '미음: ㅁ'을 혼동해도 지장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混同을 해도 지장이 없는 구석이 있다는 것은 言語學的으로 보았을 때 言語의 分解能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즉 分揀(분간)을 해서 각각 다른 것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것을〉 活用하지 않고 버린 셈이어서 어떠한 浪費가 있다는 뜻이 된다. 〈結局은 不必要하게 글의 總量이 길어진다.〉 그리고 'ㅏ', 'ㅓ', 'ㅗ' 등 여러 母音은 핏치〈聲帶의 振動〉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子音에 비해서 에너-지가 큰 것이니 모든 글자에 母音이 붙어 있는 日本語는 상당한 에너-지를 싣(載)고 있는 sonore〈낭낭한, 울리는〉한 言語임이 드러난다. 〈Roma에 앞서 地中海의 페니끼아의 港灣에서 日本 列島까지 소리질러 세력을 키워온 海洋/太古語族들보다 記號系(Sumer의 楔形文字에서 九夷族의 東方文字까지〈아래에서 說明〉)인 동방에서는 더 細分된 槪念을 發達시켜서 이보다 더 高度의 문명인 記號文明을 구축해왔다.〉 〈母音은 '힘'이고, 細分은 精巧이다: "Fine is refine."〉

15. 우리는 上古 때부터 '靈' 重視의 '上國'이여서 '原理'가 중요하였다

반대로 상술 正音과 正韻에 관한 노력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 統一新羅의 마지막까지(高句麗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정신적, 그리고 靈巫術的 상국(上國)이었던 우리나라는 麻姑城과 黃穹氏의 '符都와 復本' 原則에 더 매달려 〈時代가 要求하는 國防問題를 等閑視하고〉 결국 倭寇의 계속된 威脅과 국방의 필요성 등 현실의 문제에 충분한 關心을 기우리지 못하였다. 韓國語의 경우도 알타이系여서 母音이 많다보니 母音끼리 합쳐서 생긴 複合母音〈외, 왜 等〉도 많아서 역시 힘의 言語〈母音에는 성대의 진동이 동반〉였지만, 世上이 복잡하게 되면서 그 옛날에 東夷族들이 창제해 낸 바 있던 '漢字'라는 記號群을 新羅 이후에 다시 추가해서 쓰게 되었다. 〈'汗簡', '尖字', '霹靂篆' 등 동이족이 여러 지역에서 개발한('一晴私稿 2', 成世永 "漢字의 由來") 漢字의 根源文字들을 감안해서 世稱 '漢字'를 인제大 진태하 碩座敎授는 '東方文字'라고 명명하였다.〉 〈'漢字'는 東夷族이 오랜 歲月 걸려 발달시킨 것이라는 事實은 中國에서 認定하고 있다. 人民日報-1998-11-1〉

單一글자와 單一발음들이 응집(凝集)해서 형성된 漢字體系로 森羅萬象 모든 것을 나타내려고 하니 ① 글자 하나마다에 뜻을 주게 되었고, ② 글자마다 音韻을 附與하게 되었으며, 그러면서도 최대한 ③ 하나하나 單字/單音으로 뜻을 구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母音과 子音 양쪽의 이룰 수 있는 조합을 거의 다 消盡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서 韓國語는 말의 全體 길이에 比해 더 많은 뜻의 구분을 할 수 있게, 즉 많은 字義 區分(單語長 對比)이 可能케 되어서 情報密度가 높다. 〈小說들도 영어 등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것에 比해 中國語版과 우리의 韓漢混用版, 그리고 (역시 多要素를 혼용하고 있는) 日語版이 가장 쪽 數가 적어서 그 强力한 情報密度를 짐작케 하고 있다.〉

즉 開發 可能한 구석을 남김없이 開發해서 쓴 言語이기 때문에 우리 國語에는 母音의 종류와 '받침'의 가지 數가 유난히 많은데, 그와 같은 한국어의 母音 豊富와 終聲의 多種함 역시 高度 문명의 證據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a) ① 'ㄱ', 'ㄷ' 등 子音群에 ② 'ㄲ', 'ㄸ' 等 硬音群과, ③ 'ㅋ', 'ㅌ' 등 氣音群을 구별해서 쓰고 있고, (b) 母音과 複合母音의 종류도 많고 (c) 받침의 個數도 가장 많은 言語라는 뜻이다.〉

16. 후일(後日)에 와서 中國語는 白話와 口語 때문에 받침이 退化

反面에 中國語 사전을 보면 받침이 몇 가지 안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終聲은 기본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발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후속글자의 발음에 영향을 주는 'ㅎ'과 '않', '값' 등을 생각하면 "받침 7개"로 치부(置簿) 당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은 아니다. (원래 한국어의 받침은 2중으로 되어 있어서 左는 上部소리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표시하고 右는 다음 글자〈특히 母音의 경우〉에 音韻上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나타낸다. 예; '값', '짧', '굵' 등.) 그리고 우리 韓國語에서 外來語의 경우 非外來語보다도 받침에 쓰는 終聲의 종류에 더 많은 制限을 받고 있는데 요즈음 情報時代가 됨에 따라 外國語音寫 기회도 많아져 가고 있으니 좀 더 多樣性 있는 궁리를 허용해서 外來語에서도 'ㅋ', 그리고 'ㅌ', 'ㅍ' 등 받침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訓民正音 종성에서 'ㅅ'(齒音) 등 혀로써 숨을 막게 되는 자리에는 받침으로서 本來 'ㄷ', 'ㅌ', 'ㅅ' 등이 있을 수 있으나 'ㅅ'은 특별히 "可以通用. 故只用 'ㅅ'字"로 되어 있다. 즉 다른 받침을 쓸 만한 곳에서도 " 'ㅅ'받침만을 써도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 번번이 어느 받침으로 써야 할지 등 '語根' 걱정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을까봐 〈아래 例에서 보면 ("今 俗婦女 諺文 以'ㅅ'代'ㄷ' 殊不知 'ㅅ' 未終聲" 諺文志 註解 46段:) 즉 婦女 등 一部 사람의 어려움을 指摘하고 있다.〉 'ㅅ'系列 閉鎖終聲을 만나면 무조건 'ㅅ'을 써도 된다는 뜻이지 'ㅅ'받침만으로 限定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른 終聲에서도 사정은 같다. 〈'ㅅ' 과용은 '허용'되는 것이지 강제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17. 外來語의 경우 좀 더 많은 子音을 받침으로 쓰는 것이 허용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exploit(利用)할 수 있는 終聲의 多樣性 있는 궁리의 예를 들자면 ① 'cut'를 '컷'보다는 '컽', ② 'kick'을 '킥'보다는 '킼'으로 하는 것 등이다. 그 根據는 그것이 現實音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금까지 外來語 받침으로 許容이 안 되었던 'ㅋ', 'ㅌ', 'ㅍ' 등을 되살릴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기왕 訓民正音 제정의 목적은 '바람소리, 鶴(학) 우는 소리, 닭이 회치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를 '皆可得而書矣'(訓民正音)라는 것이 아니었던가. 즉 그 '모든 소리를 묘사할 수가 있다'고 하니 現代文明의 발달에 따라 새 문물(文物)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① 'cut'를 音寫하려면 "컽"으로, ② 'cup'을 音寫하려면 "컾"으로 하는 등 새 궁리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새로운 궁리는 특히 후속음이 'ㅎ'이란 喉音을 포함한 母音類일 때 더군다나 유리하게 될 것이다. 즉 "컷하라"보다는 "컽하라"가 발음이 자연스럽고, 'cup'을 엎어서 하는 'cupping: 겊 핑', 즉 〈在來式 民間療法인〉 '吸角시술'을 말할 때에도 마지막 글자가 'p'이니까 "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겊"으로 처리하는 것이 혼란이 덜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컾 핑'이 더 자연스럽다는 뜻이다.

18. 된(濃: dense) 發音을 誘導한다 해서 子音重複을 기피

지난 10여 년 한국에서는 외래어 등에서 특히 된(濃: dense) 받침소리의 경우 유난히 까탈을 부려 받침을 거의 다 除去한 일이 있다. 卽 그 때까지는 〈'ss'나 'tt' 같이 子音이 중첩되고 있을 때 그 2字를 반영해서〉 앞 字의 받침과 뒷글자의 初聲의 두 자리에 그 2중의 글자를 配置했었던 것인데 〈例, cutter를 컷터-, kissing을 킷싱〉, 그것이 村스럽고, "美國에서는 마치 하나의 's'나 't'와 같이 발음하고 있으니, 우리도 2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고 先行音의 받침을 除去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옳은 趨勢로 보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 氣質이 여기 저기 쉽게 소리를 강조해서 發音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옛날 '사이시옷'을 만들게 되었는데 따라서 英語 등에서 같은 子音이 두 個 겹친 스펠링일 때 자연스레 더 强하게 發音하고 사이시옷 格으로 앞 글자에까지 그 音을 파견해서 받침이 생겼

다. (例, cutter를 컷터-, kissing을 킷싱으로 하는 等.) 〈그러나 英語 等의 단독 ‘s’의 경우는 (특히 母音사이에 있는 ‘s’는) 부드러워지니까 후세(後世)에 그 發音이 ‘z’가 되어버린 그러한 경우와 區別하기 위해서 s를 겹쳐 표기했고, 그렇게 해서 보통의 ‘s’가 2重 ‘s’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독일어에서는 2重 ‘s’를 單一 文字 “ß”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결국 ‘s’를 두 개 쓰는 것은 그들의 發音 記錄 技法 上 避치 못할 방편이어서 ‘s’ 한 字의 경우와 큰 差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독일어 語頭의 ‘s’, 英語의 두 母音 사이 等을 除外하고 모든 ‘s’는 더 강하게 발음해도 지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例를 들어) ‘sign’을 ‘싸인’이라고 發音하고 ‘Sonata’車도 ‘쏘나타’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筆者가 뜻하는 것은 s ⇒ z, ß = ss ⇒ s인 흐름으로 보아서 ‘s’를 강하게 발음해도 상관이 없고, 따라서 우리 민족의 特質을 살려 사이시옷 도입이 자연스레 (즉 2중으로 表記된 子音들을 〈cutter, kissing은 원래(原來) 커터-, 키싱이지만〉 앞 글자 받침과 뒷글자 初聲을 重複 處理했던 〈컷터-, 킷싱〉 表記 방법이) 定着되어 있던 것을 꼭 바꿔야 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컷터-, 킷싱 等 강한 發音도 英語圈에서 아무 지장 없이 通한다.〉 〈‘m’이 겹치고 있는 ‘commit’도 發聲記號대로 하면 ‘커미트’이지만 당장에(1월 25일) CNN방송의 Zenith銀行 宣傳에서 뚜렷하게 ‘컴미트’로 “ㅁ”을 2중으로 發音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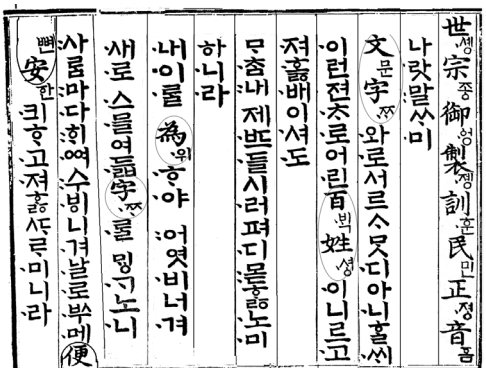
그러나 이 경우도 상술한 ‘받침忌避 경향’으로 해서 或者는 ‘컾핑’이 아닌 ‘커핑’을 주장하겠지만 이딸리아語 등에서는 같은 子音 두 글자가 겹칠 경우(예, ‘Oggi’)는 發音도 되(濃: dense)게 해 주는 것(卽, ‘오지’가 아니고 ‘옺지’)이 무난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작금 우리나라의 ‘받침忌避 경향〈젊은이 中心〉’도 이제는 졸업해야 할 때가 된 듯하다. 〈버스 內에서 하고 있는 音聲 案內도 “넥스트 스토피즈 XXX”라 하고 있는데 이는 “넥스트 스톱이즈 XXX”에서 받침忌避를 하고 있는 것이다.〉 〈本題에 돌아와서〉 卽 두 글자 이상으로 된 단어에서 앞 子音받침과 후속 글자의 初聲이 같을 때, 先行音에서 無條件 終聲을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子音이 重複 表記가 되고 發音이 더 强할 경우에는 ‘컾핑’의 경우와 같이 子音까지 겹쳐 쓰는 것도 계속 허용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또 하나의 例로서 ‘dogged’는 예로부터 해왔던 대로 ‘덬기드’를 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와 같이 고도로 ‘소리 분해능’이 높은 言語에서는 같은 글자(子音)를 앞 글자 받침자리에 두느냐 다음 자리의 초성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다른 단어가 되는 것(‘발음’과 ‘바름〈正, 貼〉’, 그리고 ‘간음’과 ‘가늠〈照準〉’)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겨 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받침을 强하게 표시하는 바 正確한 意思 疏通이 ‘우아함’에 優先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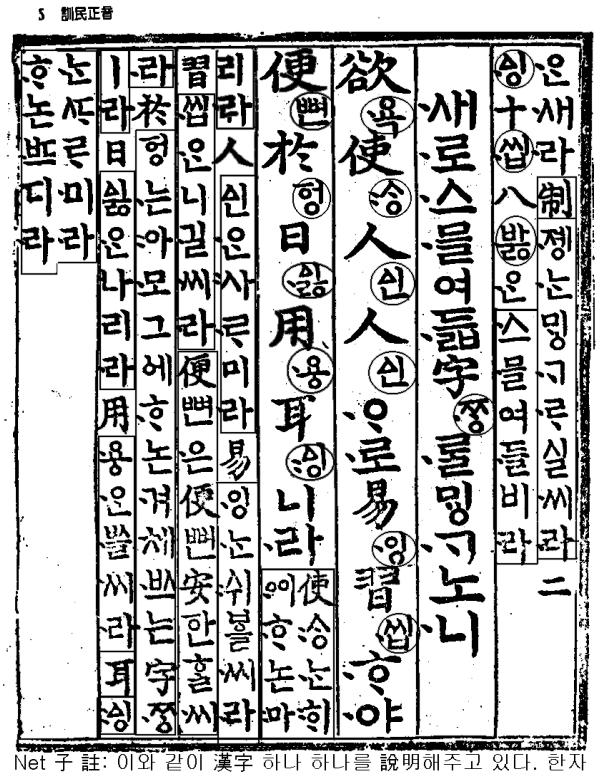
19. 人口에 비해 文字보급이 거의 없었던 中國語에서는 종성이 退化

다시 中國語 사전에서 例를 들어 'C'자로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ca', 'can', 'cang', 'cao', 'ce', 'cen', 'ceng', 'cha', 'chai', 'chan', 'chang', 'chao', 'che', 'chen', 'cheng', 'chi', 'chong', 'chu', 'chua', 'chuai', 'chuan', 'chuang' 'chui', 'chun', 'chuo', 'ci', 'cong', 'cou', 'cu', 'cuan', 'cui', 'cun', 'cuo'밖에 없어서 중국어에서 '받침'이란 'ㄴ'과 'ㅇ' 두 가지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편 'ㄹ'받침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경향(나라)이 많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中國語에서는 우리의 '조심: 操心'은 '小心'인데 발음은 '샤오싱'이라고 'ㅁ'받침이 아닌 'ㅇ'받침으로 되어 있다. 그들은 'ㅁ'받침을 發音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入聲系 漢字의 받침이 변형되어버리고 再分類되어 이제 四聲分類로서 '入聲'은 없어졌다.)

이와 같이 中國에서 극단적으로 받침이 줄어든 것은 그 언어의 發音流轉이 〈글자로 해서 牽制 當하는 일이 거의 없이〉 口語로만 맴돌았던 言語의 歷史가 무척 길다는 것을 나타낸다. 日語의 경우도 子音이 끝으로 남는 경우는 드물고 모든 子音은 모음이 뒷받침해서 '가다가나'와 '히라가나' 등 받침이 없고 〈'ん', 그리고 작은 글자로 쓰는 促音 'k'와 't'를 除外〉 반드시 母音이 同伴한 글자들이 되었을 정도이다. 〈이러한 現象은 결국은 대부분 言衆이 充分한 言語訓練을 받지 못 하고 지나치게 '입에서 귀로만' 口話가 往來했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종합해서 整理하자면 지난날 인류의 기나긴 역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一般民들은 文字를 배울 여유〈時間 등〉가 없었기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이 "發音流轉이 글자로 牽制 당하는 일이 없이 口語로만 맴돈 '文盲 言衆들'의 역사"였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書堂에서 뽑혀 향교, 향교에서 뽑혀 사학, 사학에서 뽑혀 成均館으로 가는 등, 골고루 기회를 주었고, 인재를 넓게 기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늦은〉 中世紀에 이미 書堂級 '百姓가르침의 자리'의 數는 全世界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다. 〈國民 全體를 상대로 漢字辭典(訓蒙字會)과 漢文解讀方法을 提示해 "不通文字者 亦皆 學諺 而 知字 則 雖 無師授 亦 將 得 爲通文之人矣" 다시 말해 "漢字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모두 諺文을 배우고, 敎師가 없어도 역시 將次 '通文之人', 즉 漢字解得者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全體 국민에 대한 교육에 力點을 들였던 것이다.〉 〈마을마다 學長을 任命하고 訓


世종御훈製훈訓민正音
나랏말ᄉᆞ미
文字와로서르ᄉᆞᄆᆞᆺ디아니ᄒᆞᆯᄊᆡ
이런젼ᄎᆞ로어린百姓이니르고
져ᄒᆞᆯ배이셔도
ᄆᆞᆷᄎᆞᆷ내제ᄠᅳ들시러펴디ᄆᆞᆺᄒᆞᄂᆞᆫ
ᄒᆞ니라
내이를爲ᄒᆞ야 어엿비너겨
새로ᄉᆞ믈여듧字ᄍᆞ를ᄆᆡᆼᄀᆞᄂᆞ니
사ᄅᆞᆷ마다ᄒᆡ여ᄉᆞᅀᆞᆫ비니겨날로ᄡᅮᆫ메便
ᄠᅧᆫ安ᄒᆞᆫ킈ᄒᆞ고져ᄒᆞᆯᄠᅳ르ᄆᆡ니라



Net 子 註: 이와 같이 漢字 하나 하나를 說明해주고 있다. 한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발음기호로 쓰고 한자와 한문 본분을 설명해서 원전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蒙字會 한 卷씩 複寫케 하여 工夫를 시켰다(訓蒙字會 凡例).〉〈훈민정음의 경우도 口話부분은 받침이 거의 없는 것을 觀察할 수가 있다. 漢字바탕이 없는 百姓들의 발음은 '흘러서' 받침이 없어지는 傾向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單語의 長型化를 유발해서 單位長 情報밀도가 감소하게 되어, 국어의 强力化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高密度言語를 위해서는 받침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訓蒙字會에는 5쪽짜리 '訓民正音'을 앞 部分에 挿入해서 먼저 諺文을 배우게 하고 있고 〈또한 한 글'풀이'에서도 漢韓 混用, 左上圖 참조〉, 月印釋譜 앞에도 例義篇을 諺解해놓은 것을 보면 번번이 한자의 諺解가 되어 있어 그 목적이 諺解部에 한글을 사용했지만 한자/한문을 설명해가면서 결국은 "通文"하게끔, 즉 漢字를 알게 만들기 爲한 것이었지, 內容만 傳達하는 바 眞書(漢文)의 언역(諺譯)을 指向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訓蒙字會'나 '月印釋譜'를 不通文字者를 通文之人으로 유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단지 '언역(諺譯)'을 위한 것이라면 일일이 漢字의 音과 字義를 풀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越等히 간단하게 끝났을 것이다. 따라서 上述 5쪽짜리 '訓民正音'은 역시 百姓을 眞書, 즉 漢文 解讀으로 이끄는 方便 提供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0. 故意的인 新制語 단층을 이용하는 政治

지금 우리나라는 연이은 한글맞춤법 改定年度에 따라 '先輩연대'를 無視하는 젊은이들의 斷層이 켜켜이(multilayer) 생겨 社會 隔離 違和感 조성을 多層으로 하고 있는데, 그 原因이 된 '맞춤법의 다단계 改定'의 根本 理由는 대부분 漢字 抹殺의 副作用 解消와 上述 '받침 밀어내기', 그리고 그 具現을 위한 것으로, 이제 젊은이들은 先代의 智慧가 간절히 필요한 나이가 되어 가는데 이미 先代들과는 옳지 못한 輕蔑 및 沒理解의 斷層들이 겹겹이 形成되어 年輪이나, 歷史가 주는 智慧와의 疏通을 못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原來 아버지가 하는 敎育은 子息이 30을 넘었을 때부터 本格的인 것이 되는 것이다.〉

21. 西歐 言衆에게도 最近까지 文字의 惠澤이란 없었다

그래서 記號〈文字〉 도입 이전에 發音이 확립〈예를 들어 Homeros의 Illiad 등은 吟遊시인의 입으로만 口傳되었다〉된 나라에서는 'contact', 'compact'의 경우와 같이 같은 'con'에서 시작해도 'b'나 'p' 등 앞에서는 'n'이 'm'로 바뀌어 버린 다음, 다시 말해 입에 부드럽게 進化해 버린 다음에, 글자들이 導入되었기 때문에 記號의 개입 以前에 흐름 좋은 言語가 거의 완성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와 같이 계속 문자 없이 입에서 귀로 맴돌아 발음하기 편하게 되어 불시(佛詩, French poem)는 그렇게도 읊기가 부드럽고, 이딸리아(Italia) 교회 설교는 〈자음으로 시작하고 받침이 없는 소리들만의 연속이 시대를 거쳐〉 그렇게도 낭낭한(sonorous) 것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22. 發音 流轉을 막기 위한 西歐音韻 기록 試圖의 效果 없는 노력

吟遊詩人 호메로스 때에는 글자 자체가 없었고 文字 도입 후의 發音 묘사와 記錄 試圖도 〈그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直接 들을 수가 없으니〉 당시 이웃에 있었던 다른 나라 말의 글자 발음에 寄託해서 하는 방식(例를 들어 'しんで'라는 일본 發音의 音價를 'sinnde라는 英文字에 寄託하기)이었기 때문에 그 被寄託言語의 音價가 歲月이 흐름에 따라 変해 버리면 이에 기탁했던 原音을 찾을 도리가 없게 되는 바 '非 絕對音價' 차음(借音)이었기 때문에 後世에 原音을 되찾을 道理가 없었다. 〈입의 各 부분의 모양을 說明해 가면서 原理를

따져, 다른 記號(언어)의 도움 없이 正確한 발음을 記錄하려고 하는 試圖는 訓民正音이 처음이다.〉〈=絕對音價 記述〉

上述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작금 입에서 슬슬 녹는 發音을 찾아 받침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8 · 15 광복 전후 語幹을 찾아 〈'갖다'에서 갖으니, 가져서, 갖고… 등〉 그 語幹의 받침이 다음 글자〈母音 等〉 發音과 어울렸던 것인데 "맞춤법"을 여러 차례 바꿔 가면서 語幹에 매이지 않고 '발음되는 대로' 쓰게 되었다. 〈① 목+아지⇒ 모가지, ② 흘르다, 흘르니, 흘러, 흘림⇒흐르다, ③ 몰르다, 몰르니, 몰라, 몰름⇒ 모르다 등〉 상술 KBS 프로그램 "걸어서 地球 속으로" 역시 그러한 '지나친 口話 중시(重視)'가 가져온 '받침' 퇴화 현상인 것이다. 그러한 言語加工者들은 '흘러가다'로 쓰고 '流音'을 '흘림'이라고 하면서도 '흘른다'는 方言으로 밀어버리고 標準音을 '흐른다'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視角에서 보면 결국은 받침忌避症의 한 事例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옛날부터 오랫동안 '몰로다'였던 것을 오늘날 '모르다'로 받침이 탈락되었다.

23. '優雅한 발음' 試圖로 '받침'을 除去하면 그것은 言語의 分解能 약화로

그러나 이러한 표기법 변화의 그 뒤에 숨어 있는 動因은 사실은 '받침 忌避'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語幹의 받침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받침을 다음 글자 初聲으로 돌림으로 해서 더 부드럽게 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민중의 (글자에서 멀어서) 발음이 허물어진 中國 및 日本의 언어퇴화를 따라가려 받침을 없애는 경향의 發露였고, 그 결과 語幹을 찾고 따라서 語源을 확실하게 하는 우리 조상들의 上述한 努力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받침 소멸'이라는 變化는 言語의 분해능 감소로 이어지는데 例를 들어 '달리다'에서 종성 기피로 받침을 없애면 '다리다(ironing)'와 混同되듯이 終聲 忌避로 받침을 뒷글자 初聲에 보낼 때마다 다른 單語와 混同이 되고, 그것을 피하려는 모든 努力은 결국은 평균 單語長을 더 길게 해서 언어效率을 떨어뜨리게 된다.

'文法이나 語根推究보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제안한 이승만박사를 당시 언론은 비웃었던 것인데, 朝鮮朝 시대의 '대학언해(大學諺解)' 등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助辭 '…에' 하나도 元來의 '에'表記 이외에 앞뒤 音의 組合에 따라서 '窮홈애 이쇼', '理예 窮티몯홈이 인ᄂᆞᆫ', '비로소 ᄀᆞᄅᆞ치매' 등 달리 적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앞뒤 音에 따라서 現實的으로 音이 달라지는 것을 그대로 쓰게 한 것으로 世宗은 口話記錄法으로 訓民正音을 頒布했지만 '소리 나는 대로'에 注力한 이외 구체적인 사용법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諺文 쓰기에 아무런 거리낌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즉 백성

은 구화로 표시하는 데 가리고 거리낄 것이 없어 “사람마다해여 수이녀겨 날로 ‘ㅃㅜ’메 便安킈”되었던 것이다. 계속된 맞춤법 개정으로 오늘날 우리와 같이 모두가 다 실수를 하는 ‘글자체계’가 아닌 것이다. (上記 大學諺解에서 ‘최종풀이’부분에도 ‘理예 窮티 몯흠’ 等 漢韓混用이 있음에 주의.)

24. 世宗 노력은 소리(音感)의 고도묘사를 통한 百姓 흡입, 그리고 通文 유도

그 만큼 앞뒤 글자의 ‘소리’에 忠直하게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한 音價의 變化를 發音들은 세밀하게 반영했던 것이다. 上述 러시아의 초등교육에서 글자와 발음을 完全히 배우는 데 2년이 걸리는 것도 〈過度한 知的 努力 없이〉 평상시 입과 귀에 익어 있는 ‘소리’를 최대한 尊重하면서 향학의 길로 유도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노력이었던 것인데 그러한 音의 忠直한 반영 노력을 近世 以來 우리는 지나치게 輕視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현시점에서는 “교육을 받아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歐美式 외양 맞추기 文法’ 導入을 하면서 TV 등 시청각 매스컴의 힘을 빌려 上述 ‘맞춤법의 多段階 改定’, 그리고 매스컴을 通한 新單語/新國語 敎育을 강행〈이번 새萬金 제방 완공발표 前后에 ‘새萬金’이란 漢字系 단어가 많이 들리니까 다시 기획을 만들어 그들이 新造한 단어 ‘아리울’을 해설하였다〉해서 年齡 階層間 違和感 增加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위적이고 무리한 ‘言語加工’이 가능했던 것은 TV라는 시청각교육 방법을 쓸 수 있게 되었고, 그 밖에 한국민족이 莫强한 ‘可敎育(educable) 特長’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그러한 音感忠實度는 情報의 종류가 많아지고 外國語가 많이 導入되는 오늘날 우리 跳躍力을 위해서 더 强化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포기하고 단순문법을 지향하고 있는 感이 있다. 〈우리는 소리 表記의 忠實度에서는 물러서고, 長音표시마저 抛棄하면서, 確定스펠링 助辭 ‘에’(‘애’, ‘예’는 없애고)를 쓰는 等 오로지 서양식 文法의 틀에 密着하려는 努力만 하고 있다.〉 子音의 겹침을 피하고 우아하게 발음하기를 願하는 것은 自然스러운 경향이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예로부터의 自矜을 버리고 ‘줄 서기’를 시작해(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진인 中國과 日本을 따라가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音’ 至上으로 가는 傾向, 즉 音感으로 推理하는 경향, 그리고 漢盲化로 해서 ‘義’는 模糊化… 즉, 머리 속에 ‘義’를 기탁할 漢字도형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날 우리 ‘생각 깊은 王權의 文明’이 길었던 極東의 여러 나라에서는 漢字表記가 〈優雅 音感을 찾아 자주 漂流하는〉 發音의 ‘橫步(가로걸음)’를 牽制해 왔던 것이고, 이와 같이 함부로 變하는 것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文字의 字義 확인을 통해 牽制한 德分에 1000

년을 넘게 理解가 되는 典籍 등, 옛 記錄物들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소리 감각으로 字義가 표류하는 西歐의 여러 言語에서는 不可能한 일이다.〉〈훈민정음 등 諺解부분의 土着語가 표류해 그 뜻이 不分明할 때 번번이 한자부분을 참조해야 한다. 이 字義의 準恒等性이 기호글자의 장점이다.〉

25. 漢字로 字義를 판단했던 것을 앞으로는 音感으로 뜻 짐작… 字義漂流

표기된 漢字를 보고 그 뜻을 생각함으로 해서 辭典을 찾지 않아도 卽席에서 字義가 드러나는 이 機能을 'instant dictionarying 機能'이라고 부를 만하고, 이는 어느 文字體系와 비교해도 가장 有利한 機能인 것이다. 〈다른 言語圈에서는 instant dictionarying 기능이 없기 때문에 뜻의 漂流를 되잡기 爲해 모든 서기직(書記職)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事務用 책상 아래 서랍에 備置되어 있는 자기 나라말 辭典을 찾는다.〉〈辭典 많이 찾는 習性은 부러운 것으로 우리도 漢字 없애고 ('새萬金'을 없애고 '아리울'로 하는 等) 받침抑制 新語만 만들어 감으로 해서 확실하게 '소리爲主 言語'로 가게 될 것 같으면 辭典 많이 찾는 習性을 더욱 더 길러야 할 것이다.〉 漢字圈에서는 東夷族들의 '汗簡', '尖字', '霹靂篆' 등 先史時代의 文字개발로 해서 記錄 기호(즉 文字記錄)들이 漂流하는 聲音의 다리를 잡아 그러한 '흘러감(發音流轉)'이 許容되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instant dictionarying 기능이 가까이에서 잡아 주었다.〉

그런데 上述한 바와 같이 최근 한국文化는 牽制없이 感覺만이 支配한 끝에 작금에는 '받침 빼먹기'로 흘러 '김연아(金妍兒)' 이름도 두 장의 (쎅션) 카-드를 써서 "Yu"와 "Na"로 고집스럽게 分離해 '유'와 '나'로 만들어 應援에 나서고 있다.

남의 이름을 '아름답다'라는 뜻의 '연: 妍'을 無力化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 英語 표기법이 定해놓은 'Yeon'을 거부하면서 "유"와 "나"를 쓰고 있는 젊은 층, 특히 여성층의 '우아한 바름※' 추구는 이와 같이 個人의 이름까지 바꿔 가고 있지만, 그럴 만한 權利나 學問的 근거가 있는지는 論難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確實한 것은 이러한 流行이 다른 年齡帶 等에 不必要한 혼란을 주어 言語라고 하는, 物質的으로 가난한 者의 唯一한 資産을 허물게 되고, 그러한 必要 이상의 變化 强要는 젊은이의 非常한 感覺, 그리고 젊음 특유의 直觀的 판별력을 갖지 못한 中年層, 熟年層, 그리고 老年層에 부당한 어려움을 준다는 事實이다.〉〈이와 같은 內國人끼리의 맞춤법 개정에 따른 연령별 多段差別에 앞장서면서 어디에서 異民族에까지 베푸는 '多文化'의 寬容을 이야기하는가?〉 위에서 筆者는 故意的으로 '발음'을 '바름※'으로 적었는데 지난 날 發音의 變遷에는 이와 같은 '무식한' 일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作亂: making disturbance'이라는 말은 '작란' 以外의 것이 될 수가 없지만 지금은 "장난"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 낱말의 語源을 쉽게 추리할 수가 없게 된 것 등이다. 漢字가 없어졌을 때 "發音"에 대응하는 '발음'이 '바름'이 안 되는 이유는 그 경

우 '바름(添附)'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같은 音(ㄹ)이 '終聲'으로 처리되느냐 아니면 다음 글자의 初聲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필요할 때에 정확하게 받침을 쓰는 것이 같은 길이이면서도 더 많은 단어 차별을 줄 수 있다(字義區分). 즉 '字義' 세분을 할 수 있다는 利點을 보게 되는 것이다. 즉 '발음'과 '바름'과는 〈영어표기에서는 같게 처리하겠지만〉 구별을 시켜 어휘를 키우고 있는 우리 언어文明의 强點을 보게 되면서 '받침'을 퇴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26. '골란'은 곤난(困難)하다

'困難'을 '골란' 등으로 발음하는 것도 正統의 知識을 누르고 無識한 發音을 合法化한 또 하나의 事例이다. 지난 날 '곤난'을 原音과 달리 發音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비록 틀려 있지만 '골란'으로 하기로 追認한 셈인데 〈그것은 言語의 다소의 混亂을 堪耐하면서 '大衆'을 따른 것이지만〉 요즈음에 자주 사용하게 된 "온난화"는 〈상기 '골난'의 경우와 같이〉 '올난'으로 指導하고 있지 않다.

이는 드디어 우리 時代가 "잘못된 것은 追認하지 않고 고쳐주는 '교육'의 時代"가 되었고, 〈우리 동이족은 可敎育 特性이 크게 두드러진다.〉 방송 등 一部 사람들에게 冒頭에 거론한 '正統性' 집착이 도졌는지 '視聽者라는 愚衆'을 가르치겠다는 傾向도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명인들 프로그램에서 화면 하부에 고쳐주는 일은 없으면서도, 농촌프로그램 등에서 농부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하나 옳은 version을 화면 하부에 표기해 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방송인들이 특정 발음〈특히 장음 무시〉과 단어〈'아네'와 '고맙다' 등 일방적 선택〉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현지 언어를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막으면서〉 계속 '자기네들 방식'으로 교육해서 사실상 언론이 국어 정리를 하고 있는 독재의 양상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이 'TV를 통한 교육'이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절대적이고, 또한 그들이 "누리", "아리", 그리고 "아라" 등 '超復古調' 單語를 고집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이 그와 같은 언어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편 '발음'을 떠난 "바름※" 등 發音流轉을 막기 위해서는 漢字로 表記해서 전술 instant dictionarying 기능을 發揮케 하는 것이 가장 쉬운 方法임에는 疑心의 여지가 없다. 〈上述 '곤난'의 事例에서 이를 '困難'으로 表記하면, 漢字로 해서 單語의 뜻이 想起되어 '골란'이라 혀가 돌아도 이를 抑制했을 것이다. 이 역시 'instant dictionarying 機能'인 것이다.〉

상술 '무식 追認'의 話頭로 돌아 오자면 이제 大衆교육 時代가 되었고 TV 등에서 쉽게 再

訓練할 수 있는 與件이 생겼는데 〈한국사람 대다수가 百貨店 'Lotte'를 '놋대'라고 발음하는 것을 거부하고 똑똑하게 '롯데'발음을 하고 있는〉 多重文化의 時代이기에 장차에는 頭音現象까지도 〈原來가 이는 無知가 가져온 現象이고, 한 편 北韓에서는 語頭의 'ㄹ'發音 등을 原音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를 소위 '頭音法則'으로 호칭해 가면서 '잘못된 發音'으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결국 '頭音現象'이라는 無知에서 오는 現象을 當時에는 TV 등 대중교육 매체가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追認했던 것이다.〉 〈TV 등 시청각교육 機能을 갖고 있는 매스컴은 그 强力한 敎育機能을 利用해 漢字系 단어를 消滅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더 良質의 語文 敎育 手段으로 活用해야, 古典 等 탄탄한 바닥을 디딘, 그리고 우리나라 힘을 제대로 받은 文明 跳躍을 이룩할 수가 있을 것이다.〉

27. '感性 단어, 본능 發聲' 등 原始語彙의 감각적 나열이 아니고 統辭技術이 필요하다

人生을 살아 가는 여러 局面에서 本格的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느 言語를 위해서나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Communication is a serious business〉. 따라서 영국에서 'Grammar school'를 만들었던 것은 라틴語를 배우게 하는 한 편 子息들이 動物級 原始語彙에서 벗어나 條理에 맞는 말을 하게 하고, 또는 法理 해석 등에서 더 正確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없이 사람들을 支配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生活型式도 아니었고 해서 '說得力 있는 言辯'이란 生存에 극히 중요한 基礎였던 것이다. 아무리 外樣/外貌가 平凡해도 言語를 통해서 滲出하는 人格, 그리고 文學作品들이 주는 感動 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現實은 大企業 등 大型化된 組織도 많아 이제는 그 從事者들 間 位階秩序가 확립되어야 그 다음 跳躍이 可能한 時代가 되어 가고 있다.〉

지난날 地球를 지배했던 것은 'Grammar school'로 대표되는 論理言語의 長點을 활용할 줄 알았던 *Homo sapiens*였는데 프랑스 大革命을 계기로 得票 數만 존중되는 'Demo + Cracy'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良心을 팔고 言語 및 中間單語〈主로 中傷 志向 模糊單語: calumnious mid-word들, 偏向性 虛辭: biasing expletive 등 '新造語'〉를 通해 인간을 利用하고 〈意圖的으로 放送과 敎育人員을 理念化시켜 '票'라는 견사(絹絲)를 만들어주는 投票 個體를〉 支配하는 現代 政治人들의 放牧되는 個體(선거구주민)들에 대한 言語工作 時代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이러한 人爲的인 언어가공을 우리는 善良하게 구경만 하고, 無關한 사람으로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言語에 대한 無責任한 人爲加工 試圖를 단계마다 指摘/擧論해 가면서 具體的인

牽制를 해야 한다.〉

28. 正確한 언어구사를 위해서는 文語體가 必要

이와 같이 각각의 단어의 履歷을 몰로면 상기 '작란'이 '장난'으로 변하게 되어 이를 追認하게 되었는데 이 '작란'이란 말의 消滅 역시 어려운 'ㄱ' 발음을 피하고 中國語/日語에도 있는 "ㅇ" 받침으로' 移行함으로 해서 그들의 '흐름言語'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中國에서는 共産革命에 成功한 다음 眞正한 人民들의 言語이라 하여 루쉰(魯迅)의 阿Q正傳 등에서 보는 바 '白話'만을 인정하려고 캠페인을 벌인 時期가 있었지만 결국은 예로부터의 智慧로 돌아 왔다. 말하지만 더 심한 口語文學을 포기하고 文語가 많이 섞인 '예대로의' 中國語로 다시 돌아 온 것이다.〉

이와 같이 日常에서 흔히 쓰는 口語體는 말 하기는 부드럽지만 分解能을 떨어뜨려 一般的으로 表情 등 side information 追加를 必要로 하기 때문에 口語體만으로는 '正確하고 完全 이해가 가능한 書類'가 될 수가 없고, 이 口語體 전용은 上述 받침忌避 등 言語의 退化를 가져오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표정과 聲調가 동반할 수가 없는 官의 記錄物, 또는 기록과 독출(讀出) 間에 시일/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根本을 철저하게 따져 밝힐 수 있는 대로 正確하게 표현하는 文語體를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29. 政治근본에 따라 젊은이들 言語에도 서서히 光復이…

國語의 인위적인 加工문제로 돌아와서, 근자에는 政治界 大勢의 地殼변동을 感知했는지 新年들어 言論人들의 용어의 自由追求 경향이 다소 생긴 것 같다. 오늘 12日 月요일에도 某 일간신문을 훑어보니 "아바타 - 안봤나"를 遁走-對位케 한 〈Fugue-CounterPoint〉 것을 위시(爲始), 몇 군데에서 〈말릴 수 없는〉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微笑를 머금게 되었는데, TV방송에서도 "感謝한다"를 없애고 "고맙다"로 代替하자는 그들의 그간 密約과 陰性 壓力을 깨고, 한 先輩 탤런트에게 自然스레 "感謝합니다"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다. 漢字系 단어를 포함한 國語의 全幅 활동 再開의 一端을 관찰하게 된 것이다.

좀 더 넓은 견지에서 "Communication is serious business"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늙은이들과 여러 障碍人을 포함해서 온 국민이 '부담 없고, 쉽고, 確實한 意思疏通'을 위해서 語幹을 밝히고, '받침 콱콱 박아가며, 좀 더 確實한' 發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